

글로벌 금융회사 포커스

JP모건의 메타버스 비즈니스 전략과 시사점

2022. 04. 15.

- JP모건은 금융업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환경에서 경쟁우위를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 2016년부터 선도적인 디지털 혁신 전략을 추진
 - 인공지능,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내재화하고 자체 역량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빠르게 출시(예: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플랫폼 Onyx)하는 것이 특징
 - 최근 메타버스에서의 비즈니스 확대 결정도 고객 간 거래, 상호작용 측면에서 가상세계가 급성장함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
- JP모건은 메타버스를 ①직원 교육, 외부 홍보 등 내외부 소통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넘어 ②가상세계의 경제를 뒷받침할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, ③장기적으로 메타버스 금융 생태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할 계획
 - ① 현재 메타버스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직원 교육을 제공하고, 젊은 고객층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활용
 - ② 크리에이터, 기업 등의 메타버스 진입이 확대되기 시작함에 따라, 이들이 가상세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결제,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
 - ③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내에 현실과 유사한 경제환경이 구축되어, 다양한 금융거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 간 지급결제, 무역금융 등 서비스도 구축해 나갈 계획
- 국내 주요 금융그룹은 메타버스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나 금융서비스와의 연계는 미흡하며, 향후 메타버스에서 금융 신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

작성자: 은행경영연구실 김도훈 선임연구원 (02-2173-0576)
책임자: 은행경영연구실 권우영 실장 (02-2173-0582)

I. 개요

■ JP모건은 금융업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환경에서 경쟁우위를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 2016년부터 선도적인 디지털 혁신 전략을 추진¹⁾

- 인공지능,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내재화하고 자체 역량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빠르게 출시하는 것이 특징
 - 가치, 정보, 디지털 자산의 원활한 교환을 목적으로 2020년 글로벌 금융그룹 중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Onyx를 출시
 - 2018년에 서비스가 종료된 모바일 전용 인터넷전문은행 ‘Finn(2017년 출범)’도 미국 내 경쟁 금융그룹 중 최초로 시도한 사업

■ 최근 메타버스²⁾에서의 비즈니스 확대 결정도 고객 간 거래, 상호작용 측면에서 가상세계가 급성장함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

-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389억달러로 추산되며, 향후 10년간 연평균 37.4% 속도로 성장하여 2030년에는 6,788억달러에 달할 전망
 - 메타버스 등을 통한 전세계 NFT* 매출 규모가 2020년 0.8억달러에서 2021년 176억달러로 1년 사이 210배 급성장 (Nonfungible.com)
 - * NFT는 대체불가토큰(Non-Fungible Token)의 약자로, 디지털파일의 소유 기록과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자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며, 메타버스 내에서 패션 제품, 콘서트 티켓, 임대 등 다양한 상품·서비스가 NFT화 될 수 있고 유저 간 거래 가능
 - 2026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5%가 업무, 쇼핑, 교육, 사교, 엔터테인먼트 등을 위해 하루 최소 1시간을 메타버스에서 보내게 될 것으로 예측 (Gartner)
 - * 메타버스 플랫폼 Roblox에서는 하루 600억개의 일상적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으며, 최근 Fortnite에서는 미국 가수 Ariana grande의 가상 콘서트에 4,500만명이 참석하는 등 가상 세계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

1) JP모건의 디지털 혁신 전략 관련 자세한 내용은 [붙임1] 참고

2) 메타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2p [Box] 참고

[BOX] 메타버스 정의와 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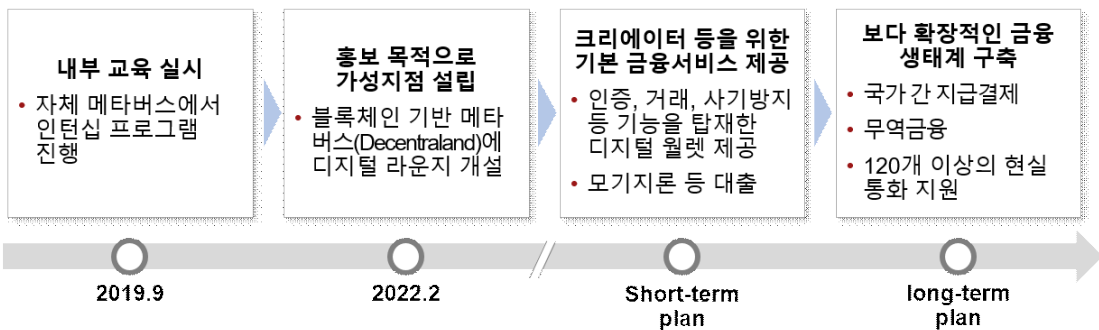
■ 메타버스란 가상·초월을 의미하는 ‘meta’와 공간·세계를 뜻하는 ‘universe’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가상공간을 지칭

- 메타버스는 2006년 미국 ASF(미래가속화재단)가 가상화 단계에 따라 분류한 라이프로그(예: SNS), 증강현실(포켓몬-고 게임), 거울세계(구글어스), 가상세계(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)의 4가지 영역으로 정의
 - 기술발전으로 라이프로그, 증강현실, 거울세계는 보편화됨에 따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메타버스 개념은 ‘가상세계’
- 최근에는 탈중앙화 기술, Web3.0³⁾ 등과 결합하여 사용자가 가상세계 내 정보·자산의 주권을 온전히 가짐으로써 단순 현실감 높은 게임을 넘어 실제 세상과 유사한 경제활동을 영위 가능한 생태계로 확대
 -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(Decentraland, Sandbox, Somnium Space, CryptoVoxels 등)가 전형적인 예시이며, 사용자는 해당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자산을 만들고 거래하거나, 토지를 매매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

II. JP모건의 메타버스 활용 현황과 계획

- JP모건은 메타버스를 ①직원 교육, 외부 홍보 등 내외부 소통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넘어 ②크리에이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, ③장기적으로 메타버스 금융 생태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할 계획

JP모건의 메타버스 로드맵



3) 웹의 진화(웹3.0) 관련 자세한 내용은 [붙임3] 참고

① 현재: 직원 교육, 외부 홍보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

■ **현재 메타버스를 직원 교육을 제공하고, 젊은 고객층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활용**

-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커리어를 원하는 취업 준비생 등을 위해 2019.9월부터 자체 개발한 가상세계에서 최신 디지털 솔루션을 경험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(Software Engineering Virtual Internship)을 운영
- 2022.2월에는 자사 홍보 등을 목적으로 글로벌 은행 최초 외부 메타버스 플랫폼(Decentraland*)에 점포(Onyx Lounge)를 개설
 - * 대표적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중 하나로 가상 토지(Land)를 매매하거나, 구입한 토지에서 상점 운영에서부터 전시회, 콘서트, 카지노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상세계⁴⁾
 - 가상 점포에 방문한 유저는 회사 소개, 블록체인·가상자산 등 분석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으며, 매장 내 호랑이가 돌아다니는 등 재미요소도 가미

② 단기 계획: 지급결제, 대출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제공

■ **크리에이터, 기업 등의 메타버스 진입이 확대되기 시작함에 따라, 이들이 가상 세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결제,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**

1) 지급결제

- 메타버스 유저(User)들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, 가상자산 거래, 사기방지 등 서비스가 탑재된 디지털 월렛을 구축·제공할 것으로 예상
 - 디지털 월렛을 통해 달러, 유로화 등 현실 통화를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(메타버스 토큰)로 교환 가능
 - * 현실 통화→암호화폐, 암호화폐→메타버스 토큰으로 교환하는 2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며,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격정보를 통합하여 최적의 환율 조건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수료를 수취
 - 사용자는 본인의 디지털 월렛을 메타버스에 연결하고,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토큰으로 메타버스 내 가상토지, NFT 등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안전하게 소유·관리 가능

4)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“Decentraland” 관련 자세한 내용은 [붙임4] 참고

-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월렛을 통한 환전 서비스 수수료 수익 규모도 급성장할 전망
 - 2021년말 기준 메타버스 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약 540억달러이며, 향후 10년간 연평균 30% 속도로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전체 수수료 수익 규모는 약 6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임⁵⁾

2) 대출 서비스

- NFT 콘텐츠를 개발하는 크리에이터 혹은 메타버스 토지 등 가상자산 구매를 원하는 개인·기업에게 관련 대출을 제공할 계획
 - 대출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(Smart Contract)*를 활용하여 대출금액, 상환기간, 이자율, 연체료 등과 같은 약관을 정하고 계약을 관리 가능
 - * 현실에서 서면으로 이루어지던 계약을 컴퓨터 코드로 구현한 것으로,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자동 이행되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
 - 사용자가 메타버스에서 대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, 원리금도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탑재
- 특히, 메타버스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확보가 필수이고,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메타버스 진출 확대로 가상토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어, 이와 관련된 대출(모기지론, 임대료 대출 등)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
 - 4대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(Decentraland, Sandbox, Somium Space, CryptoVoxels)의 평균 토지 한 구획의 가격은 2021.6월 0.6만달러에서 같은 해 12월 1.2만달러로 급등

③ 장기 계획: 보다 확장적인 금융 생태계 구축

■ 장기적으로 메타버스가 현실과 유사한 경제환경이 구축되어 다양한 금융거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 간 지급결제, 무역금융 등 서비스도 구축해 나갈 계획

- 메타버스 생태계가 고도화되면 B2C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간 B2B 거래도 일어날 수 있으며, 이때 거래 안정성 등을 위해 JP모건은 결제 중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가능
- JP모건은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 Onyx의 핵심 역량인 블록체인 기반의 정보 이전

5) 가상자산 거래 규모 성장률은 글로벌 통계 업체 Statista의 메타버스 수익 규모 성장률 예측치(연평균 37.4%), 수수료율은 대표적인 디지털 월렛 업체 'Metamask'의 부과율(0.875%)을 적용

(Liink), 결제 처리(JPM Coin Systems), 가상자산 간 교환(Onyx Digital Assets) 등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판단됨

III. 국내 현황과 시사점

■ 국내 금융그룹의 경우 메타버스를 소통의 도구로 사용 중⁶⁾

- 4대 금융그룹은 메타버스를 내부 연수·세미나 혹은 금융기능 없는 가상지점 개설 등 홍보 수단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고, 금융서비스와의 연계는 아직 미흡
 - 우리은행은 메타버스에서 임직원 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
 - KB국민, 하나은행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상타운·건물 등을 세워 교육,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

국내 4대 은행의 메타버스 활용 현황

우리은행	KB국민은행	신한은행	하나은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7월, 메타버스에서 MZ세대-은행장 소통 행사 진행 • 2021.8월,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가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7월, 메타버스 플랫폼(Gather)에 “KB금융타운” 오픈 • 2021.8월, ‘KB금융타운’에서 신입행원 연수 개강식 개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2.3월, 독자적 메타버스 플랫폼 오픈 • 금융교육, 고객 상담 등 메타버스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 기획 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7월, 메타버스 플랫폼(제페토)에 ‘하나 글로벌캠퍼스’를 구현하고 신입행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수료식 진행

자료: 코스콤, 보도자료 등

■ 대형 금융그룹은 JP모건의 메타버스 금융 비즈니스 추진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, 메타버스에서 신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

- 메타버스 내 사회, 경제 등 생태계가 예상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디지털 월렛 등 관련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
 - 가상세계 속에서 다양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구현을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 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
- 자체 구축이 어려운 경우 국내 블록체인 기술기업(그라운드X* 등)과 제휴하고 공동 개발을 추진
 - * 그라운드X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(Klaytn)을 개발한 회사이며, NFT 유통, 디지털 월렛, 블록체인 기술 솔루션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

6) 국내 금융권의 메타버스 주요 활용 현황 관련 자세한 내용은 [붙임5] 참고

붙임1 JP모건의 디지털 혁신 전략

- JP모건은 금융회사의 향후 성패가 디지털 경쟁력에 있음을 인식하고, “Mobile First, Digital Everything”이라는 슬로건 하에 2016년부터 디지털 부문에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
 - 고객이 지점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확대
 -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‘Finn’, 중소기업 대출 플랫폼 ‘Chase Business Quick Capital’, 자동차 금융 플랫폼 ‘Chase Auto Direct’ 등 출시⁷⁾하였으며, 2018년에는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(JPM Mobile) 등을 개발
 -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머신러닝, 인공지능,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확보와 함께 비즈니스에도 적용
 - [머신러닝]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사에 적합한 연구자료를 맞춤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
 - [인공지능] 고객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가상비서를 개발하여 제공
 - [블록체인] 국가 간 결제, 송금 등 분야에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
 - 프로세스 적극적인 디지털 혁신 결과 2018년 실시한 내부 조사에서 디지털 채널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가 19% 증가하였으며, 고객 유지율 또한 10%p 증가
 - 또한, 부유한 개인의 85%가 banking 앱을 사용하고 있으며, 편의성 높은 디지털 서비스를 선호
- 2021년부터는 기술 혁신을 통한 고객 친화적 서비스와 경험 제공을 위해 5가지 디지털 기술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경쟁력을 적극 강화
 - ① 기술 현대화, ② 데이터 역량 제고, ③ 인재 영입, ④ 운영 모델 개선, ⑤ 사이버 보안 강화가 JP모건의 디지털 기술 전략이며, 2021년 한 해 동안 이를 위해 120억달러 가량의 자금을 투입

7) Finn과 Chase Business Quick Capital은 각각 2018년, 2019년 서비스를 중단

JP모건의 디지털 기술 전략

구분	내용
① 기술 현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프트웨어 개발 가속화를 위해 서비스 아키텍처, 클라우드 등 기술 환경을 현대화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확장성이 우수한 인프라, 개발 플랫폼 구축
② 데이터 역량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그룹 차원의 데이터 공유로 데이터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,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비즈니스 적용 확대
③ 인적 자본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고의 기술 인재를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력 확보 방식 구축
④ 운영 모델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 서비스 출시 속도를 높이고, 실행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객 중심적 에자일 운영 모델을 강화
⑤ 사이버 보안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안 관련 신기술과 데이터 제어 기술 채택을 통해 고객의 가장 민감한 자산을 보호

자료: J.P.Morgan Chase 4Q21 Financial Results

- 공격적인 투자로 지난해 다양한 신규 디지털 상품·서비스 라인업을 보강하였으며,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분도 확대
 - 비대면 모기지 서비스(Chase MyHome), 트레이딩 플랫폼 등을 신규 구축하는 한편, 디지털 은행(Chase UK)을 구축하고 영국 리테일 시장에 진출(2021.9월)
 - 영국의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 Nutmeg 인수(2021.6월), 결제 기술 회사 VW Payments 지분 투자(2021.9월), 클라우드 기반 코어뱅킹 시스템 개발 업체 Thout Machine과의 파트너십(2021.9월) 등 외부 핀테크 확보에 노력

붙임2 JP모건의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개요

- JP모건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산업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6년을 기점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를 적극 추진
 - 2016.2월 디지털 자산 소유권 기술 테스트를 시작으로 2017.10월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간 지급결제 플랫폼, 2019.2월 기관 고객 간 거래를 효율화가 주목적인 암호 화폐 JPM Coin을 출시
- 2020년에는 블록체인 플랫폼 자회사 'Onyx'를 출범하고 정보 교환, 결제 등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 중
 - 결제 정보 이전, 결제 처리, 가상자산 교환, 블록체인 관련 솔루션 제공 등 4가지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
 - 2021년초 기준 Liink는 400개 이상의 은행 고객을 확보하였으며, JPM Coin은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은행 간 거래를 지원 중인 것으로 발표

Onyx의 서비스 라인업

사업영역	서비스 명	내용
결제 정보 이전	Liink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방형 정보 공유 네트워크로 기관들의 계정 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하여 결제 전에 계정에 대한 소유권과 상태 등을 미리 확인 가능 • Confirm(계정 유효성 검사), CheckMatch(수표 처리)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결제 정보 문제를 해결
결제 처리	JPM Coin System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JPM Coin은 예금 계좌의 원장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외 결제·이체를 수행하며 국경 간 결제 프로세스를 효율화
가상자산 간 교환	Onyx Digital Asset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디지털 자산의 기록, 처리, 이전-결제(DVP: Delivery-vs-Payment)를 수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• Onyx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가상화폐인 JPM Coin에 대한 접근을 제공
블록체인 관련 솔루션 제공	Blockchain Launc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디지털 신원증명, 가상자산, 분산금융 등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구축·제공

자료: Onyx by J.P.Morgan

붙임3 | 웹(Web)의 진화

■ 웹은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자들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, 기술발전에 따라 개방성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화(웹1.0 → 웹2.0 → 웹3.0)* 중

* 아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은 웹2.0의 개념이며, 탈중앙화 기술, 대체불가능토큰(NFT) 등 도입으로 웹3.0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

- (① 웹1.0) 199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동안을 웹1.0의 시기로 보고 있으며, 데스크톱 컴퓨터를 통한 일방적 소통 중심의 웹 생태계를 의미
 - 콘텐츠 생산자와 사용자가 명확히 구별되고, 사용자는 주로 정보 취득 등을 목적으로 생산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만 하는 형태로 야후, 다음, 네이버 등 초기 검색포털이 웹1.0의 예
- (② 웹2.0) 스마트폰 등장 이후 모바일 인터넷과 SNS의 성장으로 웹 생태계에서 개인의 참여가 크게 확대된 시기로, 웹의 활용 방식이 사용자들 간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
 - 구성원들이 콘텐츠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, 유튜브, 페이스북, 위키피디아 등이 대표적인 웹2.0의 사례
 - 웹1.0보다 개인의 참여가 확대되었지만, 개인의 참여가 플랫폼 사업자가 구축한 체계에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생산한 콘텐츠의 소유권을 플랫폼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 한계
- (③ 웹3.0) 사용자의 상황과 맥락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웹 (Semantic Web)으로 최초 소개되었으며,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중앙 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정보 주권을 가지는 것까지로 의미가 확대
 - 웹의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빅데이터·인공지능, 사물 간 연결성과 웹의 편재성을 확대하는 사물인터넷(IoT), 탈중앙화를 촉진하는 블록체인 등이 웹3.0의 핵심 기술
 - 특히 가상공간에서의 정보, 자산 등의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도록 하는 블록체인의 역할이 중요
 - 탈중앙화가 기반되어 있는 만큼 운영 방향 또한 플랫폼이 아닌 사용자로 구성된 분산형 자율조직(DAO: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)에 의해 결정
 -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Decentraland 등이 전형적인 웹3.0의 예

붙임4 |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“Decentraland”

- 2020.2월 공개된 Decentraland는 가상 토지(Land)를 매매하거나, 구입한 토지에서 상점 운영에서부터 전시회, 콘서트, 카지노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
- Decentraland는 4대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(Decentraland, Sandbox, Somnium Space, CryptoVoxels) 중 하나로 2022.4월초 기준 플랫폼의 시가 총액은 45억달러에 달함
 - Decentraland 유저(User)는 메타버스 토큰* ‘MANA’로 Decentraland 내의 토지(Land), NFT 등을 거래할 수 있으며, 크리에이터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NFT화 하고,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수익 창출 가능
 - * 메타버스 내에서 거래할 때 사용하는 화폐 단위이며, 보통 특정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만 획득·사용할 수 있으나, 일부는 Coinbase, Binance 등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매매할 수 있음
- Decentraland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거래·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 장치에서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 월렛*이 필요
 - * 디지털 월렛은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을 한곳에 저장·관리하고 전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
 - * 디지털 월렛이 없어도 메타버스를 플레이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메타버스에서 거래한 자산은 개인 컴퓨터 등 로컬 디바이스로만 접근되는 등 확장성이 제한적
- 한편, Decentraland는 중앙 거버넌스 기관이 아닌 탈중앙화 자율조직(DAO: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)에 의해 운영되어, 콘텐츠 조정, 토지에 관한 정책 등이 가상세계 내 플레이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특징

붙임5

국내 금융권의 메타버스 주요 활용 현황

금융회사	내용
우리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7월, 메타버스에서 MZ세대-은행장 소통 행사 진행 • 2021.8월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(삼성전자, 현대차, SK텔레콤 등 200여개의 회원사가 참여 중) 가입하였으며, 메타버스 미래금융 플랫폼과 오프라인 메타버스 브랜치 등을 개발할 계획
KB국민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7월, 화상회의 메타버스 플랫폼(Gather)에 금융·비즈센터, 재택센터,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된 'KB금융타운' 오픈 • 2021.8월, Gather의 KB금융타운에서 신입행원 연수 개강식 개최 • 게임형 메타버스 플랫폼(Roblox)에 가상지점 구축하고 고객상담, 금융 서비스 제공 여부 검토
신한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2.3월, 독자적 메타버스 플랫폼 오픈 • 금융브랜치, 금융교육, 고객 커뮤니케이션, 이벤트 등 메타버스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중
하나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7월,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(제페토)에 '하나글로벌캠퍼스'를 구현하고 신입행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유료화 진행 • 2021.8월, 메타버스 전담 '디지털혁신 TFT'를 신설하고, ▲메타버스 원천기술 보유업체와 협력·투자 방향 검토, PB고객을 위한 세미나·상담 서비스 제공, AR·VR 기술을 활용한 영업지원 등을 추진 예정
NH농협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5월, 메타버스 형태와 구현기술 관련 주요사례, 금융권 활용분야,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세미나 개최 • 2021.12월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메타버스 기반 핀테크 헤커톤 성료
SC제일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7월 디지털 웰쓰케어(Wealth Care) 세미나를 메타버스 컨셉으로 개최
DGB금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6월,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(제페토)에서 그룹 경영 현안회의 진행
NH투자증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11월, MZ세대 고객에게 새로운 투자경험 제공을 위해 증권업계 최초 자체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
IBK투자증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7월, 남양주시의 메타버스 '메타시티' 조성에 증권업계 최초로 참여하기로 하였으며, 모의투자, 자산관리 금융교육 등 제공할 계획

자료: 코스콤, 보도자료 등